

무하마드 유누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소액용자, 인간이 가진 꿈을 일깨우다

지난해 10월, 문학 혹은 출판과 조금이라도 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라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게다. 고은 시인이 여러 해 후보자 군에 머물렀고 유력하다는 선부른 보도까지 있었으니, 우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노벨문학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기자의 눈길은 아주 조용히(?) 발표된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머물렀다.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 2006년 노벨평화상은 “인간이 달에까지 가는 세상에 어찌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평생을 천착한 방글라데시의 한 은행가에게 주목했던 것이다.

신용은 가난한 사람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는 세계에서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무담보 소액대출’을 빈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라민 은행의 총재인 무하마드 유누스의 자서전이다. ‘지은이의 말’ 한 대목을 먼저 들어보자.

“나는 그라민 은행을 운영하면서 인간의 창조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되었다. 인간은 기아나 가난으로 고통 받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늘날 아직도 과거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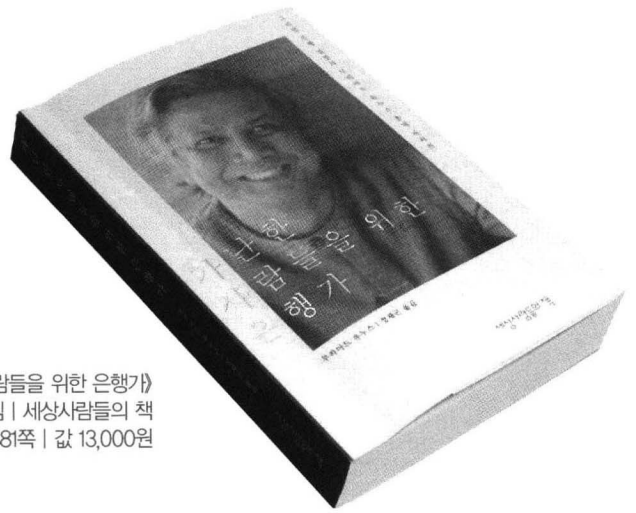
유누스 총재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가난을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구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유누스 총재를 두고 “빛나는 광채 같은 위대함과 칼날 같은 예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는 우리들 중의 천재이고, 나에게서는 성인이다”라고까지 표현했다. 한편 이 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신념에 대한 관한 이야기이며, 편견에 대한 도전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나는 머지않아 ‘가난’이란 말이 의미를 상실하고 박물관이나 전시되는 과거의 유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때가 되면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어찌서 이토록 끔찍한 참상을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었는지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유누스는 “신용(credit)은 가난한 사람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고 강조한다. 흔한 편견으로 가난을 떨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유누스는 “적은 액수의 용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과 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을 감동적으로 들려준다.

적선은 이타심만 키운다

그라민 은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 보증 따위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 오로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생산성,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온종일 처박혀



《기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무하마드 유누스 지음 | 정재곤 옮김 | 세상사람들의 책  
 | 381쪽 | 값 13,000원

서 수치와 비율, 비용과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 등 고객의 지불 상환 능력을 산출해 내기 바쁘다. 고객들에게 대출 비용에 합당한 담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라민 은행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아예 금지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은 그라민 은행의 내규에 어긋나는 일이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기존의 은행들은 사람들은 은행으로 오도록 만든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이 문맹인 방글라데시의 상황에서, 그들은 은행에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겁을 집어먹기 때문이다. 유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 곁으로 가기로 정했다. 그라민 은행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은행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사람들 쪽으로 간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이 원칙은 처음부터 지켜졌다.”

고작 몇 백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구부정한 허리 자세로 높은 창구 너머만을 바로보아야 하는 우리네 은행, 그것도 든든한 담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우리네 은행 풍경과는 다르다.

사실 유누스는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대학교수라는 번듯한 자리에 있었던 그다. 그러나 1973년 고리대금업자에게 시달리던 한 마을 주민 42명에게 27달러를 무담보로 빌려주면서 유누스의 가난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적선은 이타심만 키운다”는 그의 신념은 무담보 소액대출, 즉 신용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그라민 은행은 2,100여 개의 지점과 1만 8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 은행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라민 은행에서 외형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의 충실함이 우리를 놀라게 할 뿐이다.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 받은 600만 명 중 58% 이상이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일구어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라민 은행에 다시 저축을 함으로써 자신들보다 못한 빈민들을 돕는데 앞장선다.

더 놀라운 사실 두 가지. 소액 대출이기에 ‘그까이 거’ 하면서 상환을 미룰 수도, 아예 갚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출 상환을

이 99%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대출자의 96%가 여성으로, 이들은 그라민 은행의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방글라데시의 여성 인권 신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소액 융자는 인간적 자산을 일깨우는 수단

그라민 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은 현재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빈국들이 즐비한 아프리카에서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미국에까지 그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의 전폭적 지지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칸소 주지사 시절 빌 클린턴은 그라민 은행의 융자 방식을 차용한 ‘굿 페이스 펀드’(선의의 기금)를 이미 실행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이 여러 주로 퍼졌고, 시카고 빈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에 있어 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유누스의 말로 직접 들어보는 것이 더 감동적일 듯 싶다.

“나는 경제학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은행을 운영하면서 돈을 융자해 주고, 또 이 융자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공이 바로 회원들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을 매개로, 돈으로써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액 융자는 사실상 돈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소액 융자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액 융자란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인간적 자산을 일깨우는 수단이다. 소액 융자는 우리 인간이 가진 꿈을 일깨움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과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동석 기자